與,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신속 재추진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7월 최우선 처리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검찰개혁 4법도

모든 상임위 가동 尹 거부권 법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꼽힌다.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처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처리할 방침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낸다.

방송 3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속도를 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역시 우선 처리 과제로 꼽히지만 당내에서는 올해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는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는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동반 상승으로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비껴가며 원활한 입법 작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달 30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50.6%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우선 추진 법안 선정 등 입법 주도권 확보와 민생 법안 추진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수 기자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과 참가자들이 만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출마 정청래 의원 광주서 북콘서트

尹파면 비하인드 '국민이 지키는 나라'

"내란 여전히 진행 중…반드시 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국회의원이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를 열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임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17명의 대리인단이 직접 쓴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호남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2024년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다.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계엄을 막지도 탄핵을 시키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그럼에도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책임감과 의지로 올해 안에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대표변호사로 참여한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주불을 꺼도 잔불 정리를 제대로 해야 다시 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총괄 실무를 맡았던 김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대리인단을 100% 믿고 신뢰하며 지지해 준 정청래 소추위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심판 과정이어서 부담이 컸는데 정 의원님의 뛰어난 정무감각과 진중함이 큰 힘이 됐다"고 심판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가 아니었다면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청래를 다시 밀어 광주·전남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자"고 말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박지원·주철현·민형배·박균택·김원이 등 60여명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재정 기자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4년 첫 발의 이후 11년이라는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은 한우법은 전남 1만4천여 농가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감격스러운 성과"라며 "한우농가가 환경친화적 생산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는 등 전남도는 한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2026년 섬의 날 행사 여수서 열린다

섬박람회 연계 해양관광도시 도약 기대

전남도는 6일 "행정안전부의 '제7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7회 섬의 날 행사는 2026년 8월6일부터 4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 기념식, 지자체 홍보 전시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섬주민 대동제, 섬마을 민속촌, 금오도 비렁길 트레일러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안부는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여수의 교통 접근성, 숙박·관광 인프라, 국제행사 개최 경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지로 선정했다.

여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함께 위치한 도시로 365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세계적인 케이(K)-관광 섬 거문도, 남해안 대표 트레킹코스 금오도 비렁길, 바다 위 정원 박물관 손죽도, 예술 치유의 섬 장도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자랑한다.

또 올해 행안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섬에 여수 대경도, 안도, 백야도, 낭도, 하화도 등 9개 섬이 이름을 올리는 등 여수는 대한민국 대표 섬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섬의 날 개최지 선정을 계기로 여수가 대한민국 대표 섬 관광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여수시와 함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조계원 "여수산단 지원 예산 67억 확보"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 지원 더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 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총 67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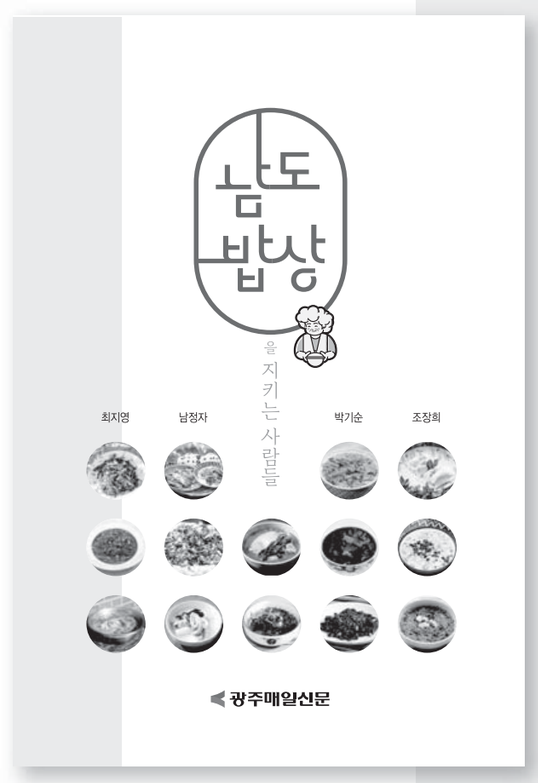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6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산업 위기 대응사업 중 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에 총 6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 5월1일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지역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억8천만원, 기업 지원 7억5천만원, 맞춤형 인력 양성 5억원 등 총 16억3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VI)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국내 납사수입 기업에 대한 관세청 조사로 인한 경영 부담,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고유가·고환율, 중국·중동의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가격경쟁력 저하,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여수산단 위기 대응과 고용위기 대응 지역으로 여수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